

극동 플라스틱회의 폐막

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10월25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제32회 극동플라스틱업계회의를 개최했다.

회의는 한국, 일본, 타이완에서 80여명이 참가했으며 각국의 플라스틱 산업동향 및 세계 플라스틱 산업동향,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례 등 다양한 주제발표와 신기술 개발에 대한 정보교류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.

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조봉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“플라스틱 산업관련 정보교류로 각국 플라스틱 산업 및 자원재활용 산업에 발전을 도모하고 상호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극동플라스틱업계회의는 국내 및 일본, 타이완 등 극동지역 3개국이 주축이 돼 아시아 지역 플라스틱 산업 동향과 발전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대표 국제회의이다.

또한 매해 개최국을 바꿔가며 개최하고 있으며, 2007에는 타이완에서 열릴 예정이다. <최지은 기자>

<화학저널 2006/10/27>